

##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 방안의 고찰\*

김자경\*\*

*Jagyeong Kim (2024). An investigation into revision pedagogy for translations students. Amid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translation industry, revision compet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translators, making it necessary to expand employability. However, revision education has yet to be incorporated into translator training and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Korea compared to post-editing educa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ing methods in revision education for translation students by drawing on a literature review.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several aspects of revision education, including differentiation of revision competence from translation competence, the goal of revision education, shared experiences and student feedback on revision classes, and educational needs identified in survey-based studies. As a result, useful suggestions are derived in relation to theory, practice, and cooperative learning for revision educati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vision pedagogy in translator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Translation education, revision education, revision competence, goal of revision education, revisers

**주제어:** 번역 교육, 감수 교육, 감수역량, 감수 교육의 목표, 감수자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305)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연구교수

## 1. 들어가는 말

기계번역의 발전 속에서 번역물 감수<sup>1)</sup>역량의 중요성은 크다. 뎀(Pym 2013: 496)은 기계번역의 시대에 포스트에디터나 감수자가 번역자의 직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감수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선(2019: 48)은 과거에는 번역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감수역량에 부가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25개 번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번역자에게 기대하는 역량을 조사한 연구(Mroczyńska 2016: 204)에 따르면, 언어적 역량과 번역 경력, 번역 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혔지만, 그다음 순서로 강조된 것은 감수역량과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지식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 전공자나 경력자 대상의 채용공고에서도 번역에 대한 확장적 관점이 수반된 다양한 업무가 요구되고 있으며(김순미 2018: 15-18), 전현주(2017: 250)는 전통적인 번역자의 역할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번역 유관 산업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감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송연석(2018: 132)은 앞으로 번역 교육은 번역물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평가와 감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역역량만으로 감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번역자를 위한 감수 교육은 필요하다. 한센(Hansen 2008)은 좋은 번역자가 꼭 좋은 감수자가 될 수는 없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감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빈(2013)은 학부생의 감수 결과물에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구체적 감수 지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10명의 전문 번역자에게 감수를 의뢰한 후 결과물을 분석한 이항(2007: 117)은 대부분이 표현 차원의 수정에만 집중했고 오역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 효율성 문제까지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수는 번역과 다른 방법론과 훈련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원문과 비교하여 번역문을 수정하는 이중언어감수(bilingual revision) 작업을 하는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김자경 2023)에서도 번역자로 일하다가 감수자로 일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별도의 감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2)</sup> 번역 경험이나 경력, 번역 교육이 감수자 채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

1) 본고에서 ‘감수’는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물을 감수하는 자기감수(self-revision)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번역물을 감수하는 타인감수(other-revision)를 뜻하며, 기계번역물의 감수는 포스트에디팅으로 표현한다.

2) 참가자 모두 번역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번역자가 감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감수자와 번역자의 입장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감수 작업에 대해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감수자로 일하면서 가이드라인 제공이나 톨 교육 외에 감수자를 위한 별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답변한 참가자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서 번역물의 감수를 가르치는 수업은 찾기 어렵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더욱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지만, 감수 교육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다. 감수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수 수업을 계획한다면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테린 외(Terryn et al. 2017: 2)는 감수 수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헤이즈만(Hagemann 2019: 92) 역시 오랜 기간 번역 수업을 진행했으나 감수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경험은 없고 감수 교육에 참조할 수 있는 문헌도 많지 않아 두 학기 동안 감수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의 계획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수 교육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번역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수 교육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둘째,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수역량과 감수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셋째, 감수 수업의 사례와 학생 의견을 공유한 연구들을 토대로 이론과 실습, 협력적 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수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 2.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시도와 논의

번역 교육 과정 내에서 감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이미

---

주었다. “학교(외대)에서는 번역 실무만 가르치고 번역 감수 교육은 없다. (감수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감수자와 번역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감수자와 번역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배우면 좋다고 생각한다. 업계에 대한 트렌드를 감수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번역과 리뷰는 어떻게 다르고 리뷰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뒀야 할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번역자가 리뷰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알게 되면 리뷰할 때도 편하고 리뷰를 잘할 수 있는 분도 많다. (번역자가) 의외로 (리뷰)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알면) 업계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마틴코빅(Martinković 2022: 85)은 감수 수업 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번역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감수 수업을 포함하는 것이 비용이나 최종 목적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콘티넨 외(Kontinen et al. 2021: 194-195)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수 교육을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정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거나 번역물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하고 번역자와 소통하는 부분은 번역 수업에서 쉽게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에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의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방법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논의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콘차(Concha 2019)는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8주에 걸쳐 일주일에 2차례씩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헤이즈만(2019)은 독일 마인츠 대학교의 통번역·문화 언어학부에서 2016~17년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조사하였고, 스코체라(Scocchera 2020)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에서 출판번역 수업 모듈의 한 부분으로 10주 과정의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솔다거 외(Schjoldager et al. 2008)는 EMT(European Master in Translation) 프로그램에서 석사생을 대상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1주일간 강의와 실습, 학생 발표를 포함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 후에 3달 동안 온라인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콘티넨 외(2021)는 핀란드 투르쿠 대학의 번역 교육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고, 히치와 피터린(Hirci and Peterlin 2020)은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나 대학교에서 번역 전공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13주 동안 진행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라토라카와 에일로(Latorraca and Aiello 2021)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대학에서 전문 번역 수업을 듣는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17년 파일럿 감수 수업으로 진행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 뒤 2017~18년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의 여러 번역 교육기관에서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을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학 과정에서 감수 수업을 향한 관심이 높지는 않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수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솔다거 외(2008)는 감수 수업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를 진행한 결과, 시간 제약을 고려해 고쳐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하며, 감수자의 역할, 전문분야 텍스트에 대한 이해, 텍스트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 상황에 가까운 연습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품질이 낮은 텍스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스코체라(2014: 4)는 번역자와 감수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수 교육의 측면에서 다섯 가지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감수가 번역을 포함한 모든 글 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둘째, 감수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수에 초점을 맞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적, 전략적 역량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감수 교육의 콘텐츠와 방법, 틀이 필요하고, 넷째, 감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용어 공유가 필요하고, 다섯째, 감수 교육에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수 수업에서 번역물 감수의 정의와 개념, 감수 유형과 절차, 분석적·비평적 메타언어, 오류 유형화, 감수 항목과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가적 활동으로서 번역자와의 관계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실력 향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Kabiri and Lzadi 2021; Kasperavičienė and Horbačauskienė 2020; Latorraca and Aiello 2021; Liang 2021; Liang et al. 2023 등). 구체적 수업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 연구들은 호주, 리투아니아, 중국, 이란 등 여러 대학의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서 감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나 수업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수 교육을 진행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센(2008: 270-271)에 따르면, 감수 수업을 들었던 번역자 14명 중 10명이 감수 수업이 졸업 이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스코체라(2020: 34)는 감수 수업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22명 중 19명)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남겼다고 보고했으며, 헤이즈만(2019)은 감수 수업을 들은 학생 13명 중 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모두 감수 수업이 전반적으로 예비 번역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그중에서도 5명은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감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불만족스러운 의견도 볼 수 있는데,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언어학 교수자가 아니라 번역학 교수자가 감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수 절차나 감수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수업에 대한 여러 불만이 제기되었고 (Kabiri and Lzadi 2021), 번역 교육 커리큘럼에 감수 수업이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대다수가 동의했으나 수업 내용의 적절성이나 감수역량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라토라카와 에일로(2021: 467) 역시 감수 수업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수 수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수역량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체계적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논의한 연구는 없으며 수업 방법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거나 수업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업 후 학생 의견이나 실력 향상 정도를 점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수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과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수역량과 감수 교육의 목표, 감수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감수역량

번역역량도 감수역량의 주요 하위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감수역량에서 번역역량을 강조한 연구가 많다. 로빈(Robin 2016: 48)은 감수자는 번역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버트 외(Robert et al. 2017: 10)도 기존 감수역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하위요소로 번역 경험을 언급했을 만큼, 감수역량에서 번역 경험은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다. 감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연구에서도 번역 경험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었다(김자경 2023: 189). 하지만 번역역량이 좋은 감수자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감수역량에 관한 종적 연구를 진행한 한센(2009: 274)은 감수역량은 번역역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르며 감수는 특정 영역에서 추가적인 기술과 능력, 태도, 향상된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번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감수 교육을 진행한다면, 감

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역량과 달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섭(Mossop 1992)은 실무와 교육 경험을 토대로 교육적 관점에서 감수자가 가져야 하는 능력과 태도를 설명하였는데, 재번역과 감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수정을 설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하며, 번역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않고, 분쟁 상황에서의 외교적 능력, 리더십과 조심성 등 개인적 자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쿤즐리(Künzli 2006)는 감수를 하면서 발화한 내용의 분석을 기반으로 감수역량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 전략적 역량(감수 작업에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결정하는 역량), 둘째, 대인관계적 역량(번역가와 감수자, 번역 회사, 의뢰인, 원문 저자 등 여러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셋째, 전문가적/도구적 역량(감수의 실제와 관련된 지식 및 감수 작업을 위해 필요한 도구 활용 역량)이다.

로빈(2016: 48)은 감수자는 번역역량에 더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하며 감수가 필요한 오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빠진 부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추가를 삭제하고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도착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오류를 수정하고 번역물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센(2008)은 감수역량과 번역역량의 접점을 고민하면서 감수역량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번역역량과 별도로 감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첫째, 감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둘째, 화용론적, 언어적, 문체적 현상과 오류에 대한 주의력, 셋째, 다른 사람의 번역문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넷째, 수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버트 외(2017)는 번역역량 모델을 토대로 9개 하위역량과 하위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변수로 구성된 감수역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이중 언어역량, 언어외적역량, 번역지식역량, 번역절차활성화역량은 번역역량과 겹치는 부분이며, 감수 작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역량으로 전략적 역량, 감수절차활성화역량, 감수지식역량, 대인관계역량, 도구적 역량이 제시되었다. 번역과 감수 규범 및 브리프, 정신생리학적 요소와 번역자와 감수자로서의 자기개념 및 전문가적 에토스는 감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포함되었다. 감수지식과 절

차 역량에는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감수절차, 감수의 역사, 개념, 정의, 원칙과 항목, 품질, 감수 브리프와 고객과의 관계 등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수의 실제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전략적 역량은 감수 작업의 계획과 실행, 최종 목적을 고려한 과정 및 결과의 평가, 하위역량의 활성화 및 약점의 보완을 위해 효율적 감수 과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포함하며, 대인관계역량은 감수 작업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번역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감수자로서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포스트에디팅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스트에디팅 역량과의 접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콘티넨 외(2021: 193-194)는 감수와 포스트에디팅의 하위역량을 비교하며, 감수는 인간번역 결과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를 이해하고, 포스트에디팅과 달리 인간 주체와의 의사소통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포스트에디팅에서는 정해진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 감수 작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스트에디팅에 비해 기술 지식이 덜 요구되지만, 감수를 위해 사용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나 코퍼스 툴, 문법, 스펠링 체크 툴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감수 작업에 필요한 역량을 감수 작업의 의미와 오류 유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략적 역량, 번역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수정 내용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역량, 감수에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 4. 감수 교육의 목표

교육 목표는 교수자에게 수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활동을 계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향(2007: 144-152)은 이론적, 실무적 고찰을 종합하여 감수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원칙으로는 첫째,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되 초기에는 번역물 감수를 본격적 번역 수업에 들어가기 전 연습 정도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에는 실제 수행할 감수자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셋째, 윈어민 감독자나 협력 방식, 코디네이션 작



업 방식 등도 다뤄져야 하고, 넷째, 교정기호 숙지를 활용하며, 다섯째, 감수 브리프를 교육 상황에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고, 여섯째, 초반에는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이론 비중을 낮추고 실습 비중을 높인다. 이 원칙을 토대로 3단계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 목표는 번역물 감수 및 품질평가 개념들을 인식하고 원문 구속에서 벗어나 번역문을 독립적 텍스트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며, 2단계에서는 국내 번역시장에서의 감수 현황 및 감수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실습을 통해 감수의 기본적 방법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습 비중을 늘리며, 3단계에서는 전문 감수자로서의 역량 제고를 목표로, 난도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감수하는 실습을 하고 원문을 모르는 원어민과의 협력, 코디네이션 등의 작업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구체적 감수 브리프를 감안하여 작업하는 연습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해외에서도 여러 학자가 교육 경험 등을 토대로 감수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모섭(1992)은 캐나다에서 감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종합하여 감수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번역사로 일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감수로, 재번역이 아닌 감수가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수정한 내용의 타당성 입증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효율적 방법으로 자기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야 하고, 둘째, 텍스트를 읽고 원문 없이 감수하는 연습을 목표로, 독자 입장에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고, 텍스트를 단어 나 문장 차원이 아닌 더 큰 단위로 보고, 도착어의 정확한 구사법을 익혀야 하며, 셋째, 글쓰기 연습으로, 번역과정에서 왜 감수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감수나 편집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쿤즐리(2006)는 교육 경험과 감수 과정 연구 결과를 통해 감수역량을 토대로 한 수업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적 역량의 확보, 즉 특정 감수 작업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고, 감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초안의 오류를 판단하고 필요한 감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대인관계 역량의 확보, 즉 다양한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감수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번역자의 작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번역자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초안에 이루어진 감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주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 가능해야 하고, 셋째, 전문가적·도구적 역량의 확보, 즉 감수자의 역할과 전문가로서 가치와 윤리를 이해하여 감수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정보와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감수의 역사와 이론, 연구, 관련 개념과 정의, 감수의 원칙, 절차, 항목, 감수자와 번역자의 관계, 전문적 활동으로서의 감수, 감수자의 도구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수업 활동으로 첫째, 교수자의 강의, 둘째, 팀 활동과 학생 발표로 구성된 세미나, 셋째 현실적인 감수 브리프에 따라 번역물을 평가하고 감수하고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는 개별 감수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보면 감수 수업에서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 감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이론 수업, 둘째, 감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습, 셋째, 감수자로 관련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쿤즐리(2006)처럼 감수역량을 적용해 설명하면, 전문가적·도구적 역량 확보를 위한 이론 수업, 전략적 역량 확보를 위한 실습, 대인관계적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 사례에서도 유사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섭(2022)이 진행한 감수 수업은 교수자 강의와 토론, 감수 연습으로 채워지며, 라토라카와 에일로(2021)는 감수에 관한 인식 개선, 감수역량에 대한 구체적 이해, 협력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실습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콘티넨 외(2021: 193-195)는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는 기계번역 활용 능력,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적용 능력이 중요하지만, 감수 교육에서는 감수 개념과 직무에 대한 이해, 번역자와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감수 수업의 환경을 강의실, 사무실, 토론방의 세 공간으로 구성하여 강의실에서는 교수자가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이 감수역량 개선을 위해 실습을 하고 토론방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Kontinen et al. 2017: 152). 따라서 본 연구는 감수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론, 실습, 협력적 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 5. 감수 교육을 위한 방법

본 연구는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한 연구들을 토대로 첫째, 이론 수업의 측면에서 내용과 수업 시기, 둘째, 실습의 측면에서 단일언어감수의 연습, 감수 코멘트 작성과 논의,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 활용

과 전문가 결과물 참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셋째, 협력 활동의 측면에서 수업 내 발표와 토론,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참조 가능한 교육 방안을 정리하였다.

## 5.1. 이론

이항(2007: 145)은 효율적 감수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론 수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볼 수 있다. 스코체라(2020: 35)는 감수 수업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론 수업이 유용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특히 감수 개념의 소개와 오류 유형화와 분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론 수업을 들은 이후에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메타언어를 사용한 설명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감수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감수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론 수업을 포함하고 있다(Concha 2019; Hagemann 2019; Kontinen et al. 2021; Martinkovič 2022; Schjoldager et al. 2008).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번역 석사 과정에서 진행한 감수 수업에서는 감수 개념과 품질평가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번역물 감수의 역사를 소개하여 기본 개념을 정립한 후에 감수의 기준과 원칙, 감수 작업 시 빠지기 쉬운 함정, 직업으로서의 감수 등을 설명하고, 교정부호를 숙지하도록 하였다(Horguelin 1988; 이항 2007: 137에서 재인용). 번역 수업에서 2주간 감수 수업을 진행한 정(Cheong 2010)도 실습 전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했으나, 번역자 의사 결정의 역할과 중요성, 스코프스 이론에 따른 번역 브리프 개념, 번역물 독자의 정의와 번역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소 번역 방법, 장르 인식, 감수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인 번역 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감수 이론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언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5.1.1. 이론의 내용

이항(2007: 147-151)은 감수 이론 수업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감수의 개념, 정의 및 기준, 교정부호,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 감수의 역할과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해외의 감수 수업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이론적 설명이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콘차(2019)는 6주에 걸쳐서 감수

관련 자료들을 읽으며 감수 원칙과 항목 관련 논문을 읽도록 했고, 콘티넨 외(2021)는 감수의 개념과 유형, 감수 항목 등을 설명하고 번역물의 생산 과정에서 감수자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마틴코빅(2022)은 세 차례에 걸쳐 이론 수업을 진행하며 감수 유형과 작업 과정, 감수자의 직무와 역할, 감수의 역사에 대해 다루었다. 웨이(Way 2009)도 감수 관련 문헌을 읽도록 하여 감수 개념과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번역 회사에서 감수 작업이 진행되는 사례를 논의하였다.3)

이론 수업에서 다루진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감수 개념과 원칙, 감수 유형과 감수 항목이 다루졌으며, 일부 수업에서는 감수 역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고, 번역물의 전체적 생산 프로세스에서 감수 작업의 절차, 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에서 다루질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이론 수업의 내용**

감수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수의 개념과 정의</li> <li>▷ 감수의 원칙</li> <li>▷ 감수의 유형</li> </ul>
감수 작업의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수 항목</li> <li>▷ 감수 범위</li> <li>▷ 번역물 품질평가 방법과 오류 유형화</li> <li>▷ 감수 작업에 필요한 툴 (X 벤치 등)</li> <li>▷ 전문용어, 코퍼스 활용 능력</li> <li>▷ 감수 관련 메타언어</li> </ul>
감수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수자의 직무와 역할</li> <li>▷ 감수자의 작업 여건 (요율, 채용, 고용 형태 등)</li> <li>▷ 감수자의 협업 방식 (PM, 번역가와의 관계 등)</li> <li>▷ 시장에서의 다양한 감수 프로세스, 감수자에 대한 요구 등</li> <li>▷ 감수자의 윤리적 문제나 딜레마, 직업적 특징</li> </ul>

3) 흥미롭게도 이론 수업에서 감수 유형이나 항목 등을 설명할 때 모셔의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를 교재로 활용했다는 설명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여러 연구(Hagemann 2019; Konttinen et al. 2021; Martinkovič 2022; Scocchera 2020)가 모셔의 감수 유형과 항목을 수업 시간에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모셔의 감수 유형 틀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포스트에디팅이나 번역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의 맥락에서 쉽게 참조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감수 이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5.1.2. 이론 제공 시기

이항(2007: 145-146)은 감수 교육의 초반부에 이론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초반부에 이론적 설명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여러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다거 외(2008)는 감수 수업을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감수 이론을 설명했고, 마틴코빅(2022)도 13주로 구성된 감수 수업에서 초반 3주는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이후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업 초반에 이론이 너무 많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초반부에 이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후반부에서 실습에 집중하는 것이 다소 불균형적인 구성일 수 있으므로 이론 수업을 나눠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후반부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 스코체라(2020)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스코체라는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론 수업을 가능하면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수 교육의 초반부나 후반부에만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머피(Murphy 2013)는 감수 연습을 먼저 진행한 후에 관련 자료를 읽도록 하고 읽은 내용을 적용하여 감수 연습을 한 다음에 코퍼스 언어학이나 코퍼스 툴 등 활용 가능한 이론이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이를 적용하여 연습을 진행하는 등 실습과 이론 수업을 교차 배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러 수업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론 수업을 초반에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초반부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나눠 제공하며 이론과 개념, 툴을 직접 활용 가능한 실습과 묶어서 차례로 교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따라서 표 1에서 감수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초반부에 제공하고, 감수 작업을 위한 도구에 포함된 항목은 적절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감수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 단계에서 제공하거나 교실 밖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5.2. 실습

감수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감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의 중요성은 크다. 마틴코빅(2022)은 수업 전 실시한 조사에서 감수 수업에서 실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

성했다고 설명했으며, 스코체라(2020)는 감수 수업 진행 후 설문조사 결과에서 22명 중 18명의 학생은 이론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4명은 불만을 드러냈고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습 중심의 수업을 선호했으며 감수 연습과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5.2.1. 단일언어감수의 연습

번역 수업에서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하면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이중언어감수 연습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데, 원문을 참조하지 않고 번역문을 고치거나 번역문이 아닌 글을 감수하는 단일언어감수 연습도 추가할 수 있다. 원어머니 아닌 저자가 쓴 글을 고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의견(Schjoldager et al. 2008: 804)을 고려할 때, 단일언어감수 연습에서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텍스트의 감수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항(2007: 147)은 1단계 감수 실습에서 원문 없이 번역문을 주고 자유롭게 논의한 후에 원문을 주고 비교하는 ‘구두감수’와 ‘원문 없는 감수’를 연습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처럼 실습 시작 단계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지 않는 단일언어감수 연습부터 진행한 여러 수업 사례를 볼 수 있다.

스코체라(2020)는 감수 실습을 네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초기에는 단일언어감수를 진행한 후에 이중언어감수를 연습하고, 그 이후에 코멘트 작성과 함께 이중언어감수 연습을 진행했다. 이러한 단계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일언어감수와 이중언어감수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문이 있거나 없을 때 감수 가능한 부분의 차이점,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분석-비평적 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헤이즈만(2019)도 실습 초반부에 단일언어감수를 진행하였는데, 비번역문의 감수 연습을 먼저 시작한 후 번역물 감수 연습을 진행한 것이다.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이 아닌 텍스트를 감수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감수 유형과 항목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후에 번역문 감수 수업을 진행하였다.

마틴코빅(2022)도 단일언어감수 연습을 포함하였는데, 예를 들면 참여자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러시아어)에서 번역된 텍스트도 연습하도록 했다. 원문을 읽을 수 없는 감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함으로써 원문을 확인할 때와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원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수할 수 있으므로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단일언어감수를 연습할 때 맞춤법과 문장부호, 문법적 측면의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단일언어감수 연습에서 언어적 차원의 수정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은 언어적 수정, 문법 중심의 연습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참조한 것이다.

마틴코빅(2022: 81-82)은 단일언어감수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도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빈번한 실수가 포함된 구나 문장의 목록을 작성하여 오류 유형을 나누고 수정 방식을 논의하는 연습이나 텍스트의 단락 구분을 지우고 단락 구성을 직접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감수자가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까지 변경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Incorrect	Correct	Error Type
Pripustíme, že Fitzgeraldovi <b>vrátíme rukopis</b> ...	Dajme tomu, že Fitzgeraldovi <b>rukopis vrátíme</b> ...	Incorrect word order
Zdravotný stav sa bude dať posúdiť, až keď si sadne na <b>svoju posteľ</b> ...	Zdravotný stav sa bude dať posúdiť, až keď si sadne na <b>posteľ</b> ...	Incorrect use of a possessive pronoun
Moskva akúkoľvek účasť na vražde Litvinienka <b>odmieta</b> .	Moskva akúkoľvek účasť na vražde Litvinienka <b>popiera</b> .	Incorrect verb
Ján <b>záporne</b> pokrútil hlavou; Ján <b>nadšene</b> prikývol hlavou	Ján pokrútil hlavou; Ján nadšene prikývol	Redundant use of adjectives

그림 1. 마틴코빅(2022: 81-82)의 단일언어감수 연습 예시

5.2.2. 감수 코멘트의 작성과 논의

송연석(2018: 125)은 기계번역 결과물이 번역목적에 비추어 최선인지는 인간이 판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번역 교육에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능력의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수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본 조사에서도 감수 의견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Schjoldager et al. 2008). 감수 이유를 쓰고 설명하는 연습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는데, 헤이즈만(2019: 95)은 감수 수업에서 수정 내용을 설명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콘차(2019: 14-15)는 감수 수업 후 학생들의 감수역량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감수 수업을 들은 후에 학생들이 번역문에서 찾는 오류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찾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화하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감수 수업 후 오류 인식보다 문제 해결과 정당화 역량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수 실습에서 수정 이유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연습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감수 수업에서 감수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논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틴코빅(2022: 80)은 감수 이유를 설명하고 감수 내용을 정당화하며 논의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텍스트를 다루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졸업 후에 자신이 감수한 내용을 옹호하고 설명하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콘차(2019)는 번역물을 감수한 이후 감수 내용과 이유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정했는지 감수 방법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펠라(2020: 32)는 학생들이 감수 내용을 설명할 때 적절한 메타언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고려할 때 감수 코멘트를 작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수 항목과 오류 유형 등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충분히 연습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감수 코멘트의 내용으로 수정 내용과 이유에 대한 설명, 감수 기준과 항목에 따른 분류가 포함될 수 있는데, 수정에서의 우선순위, 즉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인지, 오류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번역과 감수를 구별하며 필요한 수정과 수정 가능한 부분을 구별하고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솔다거 외(2008: 803)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시간 제약이나 감수 목적을 고려할 때 수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감수 코멘트를 작성할 때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성이나 오류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콘차(2019)는 번역물의 품질을 고려할 때 감수 또는 재번역이 필요한지 먼저 평가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뒤에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감수 항목에 따라 오류를 확인하고 분류하며, 정당화할 수 있는 수정과 꼭 필요한 수정만 하도록 연습을 진행하였다.

헤이즈만(2019)은 감수 내용을 네 항목(must, should, could, won't)으로 분류하여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 수정하면 좋은 부분, 수정 가능한 부분, 수정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감수 연습을 하도록 하였고, 이런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오류 심각도에 따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1등급부터 수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4등급까지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Ammour 2002). 하지만 이항(2007: 143-144)은 오류 심각도에 따라 네 단계까지 나누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류 수정’과 ‘개선’으로만 분류하는 방법을 추천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로빈(2018)은 학생들의 번역물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필수적 수정과 선택적 수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여 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종이라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컴퓨터로 한다면 위치를 바꿔 규범과 규칙에 따른 필수적 수정은 번역문에 쓰고 선택적 수정은 별도의 메모로 표시하여 학생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수 코멘트 작성에서도 이처럼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과 수정이 가능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5.2.3.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 연습과 전문가의 감수 결과물 참조

마틴코빅(2022)은 손떨 문제나 매우 많은 번역문부터 고칠 것이 별로 없는 번역문까지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을 활용하여 실습 수업을 한다고 설명했으며, 솔다거외(2008)도 실제 상황에 가까운 연습이 필요하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품질이 낮은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습이 감수 작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감수 작업의 어려움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문제점은 번역문의 낮은 품질이었음을 고려할 때(김자경 2023: 192), 감수 수업에서 재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번역문부터 고품질의 번역문까지 다양한 품질의 번역

문을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 감수자의 작업 결과물을 원문, 번역문과 비교하며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머피(2013)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직접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감수한 텍스트를 주고 감수 전후 결과물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왜 그렇게 수정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준 후에 이론적 설명과 구체적 감수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감수하는 실습을 진행한 것이다. 전문가의 결과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하도록 하는 활동은 감수 범위와 항목, 우선순위 등 감수 작업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업에 활용 가능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세미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틴코빅(2022)은 감수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업계에서 감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수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 5.2.4.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감수 실습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수 실습을 진행한 사례도 볼 수 있는데, 무들(moodle)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거나(Latorraca and Aiello 2021) 1주일간 집중적인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그 후 3달 동안 온라인 기반의 감수 실습을 진행한 수업(Schjoldager et al. 2008)을 예로 들 수 있다. 히치와 피터린(2020)은 감수 수업에서 위키(wiki)를 사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위키는 웹페이지에서 쉽게 에디팅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고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으며 바꾼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한 사람과 수정 시간, 수정 내용이 모두 기록된다는 점에서 감수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면 또는 위키를 활용하여 감수 활동을 했을 때 감수 방식이나 유형,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번역학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감수 수업을 진행하고 그룹을 나누어 번역 후 서로 감수하도록 한 결과, 위키를 사용했을 때 수정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정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더 활발하게 감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은 대면 수업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솔다거 외(2008: 812) 역시 대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학습을 계획한다면 대면 수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대면 수업을 병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양성혜와 송상기(2012)는 통역 수업에서 협력 학습을 강화하는 학습 도구로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직 번역물의 감수 활동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다룬 사례는 없지만, 번역 수업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수 피드백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도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하나로 온라인 학습모델 개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5.3. 협력 활동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만큼(Kontinen et al. 2021: 193) 감수 교육에서 대인관계적 역량 개선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왔다. 감수 교육에서 라토라기와 에일로(2021: 467)는 협력적 태도, 리앙 외(Liang et al. 2023)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스코체라(2020: 22)는 감수 수업에서 협력적 감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티넨 외(2021: 196)는 이러한 활동은 번역 생산 과정에서 관련 주제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번역 수업에 포함하기 쉽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번역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적 감수 활동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5.3.1. 수업 시간에서의 발표 및 토론

수업 시간에 교수자와 감수 결과물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활동이 가능하데, 마틴코빅(2022)은 수업 시간에 학생 2~3명이 차례로 자신의 감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서를 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설명한 뒤에 함께 논의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하며,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번역물을 공개하고 수업 시간에 다 함께 고치는 방법도 가능하다. 콘티넨 외(2021)는 감수 교육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두세 명의 번역물을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고 함께 고치는 것이 잘 알려진 유용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함께 번역물을 고치는 과정에서 번역 결과물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번역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피에르작(Pietrzak 2014: 4)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방법을 설명했는데, 번역 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수자가 취합하여 익명으로 공유한 뒤 함께 감수하였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오류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감수 작업에 집중하며 품질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감수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거나 번역물을 교수자와 함께 고치거나 교수자가 문제 지점을 제시한 후 함께 감수하는 활동은 번역 수업 내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이론 수업에서 학습한 감수의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는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 5.3.2.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리앙 외(2023)는 교수자-학습자 소통에서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감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공유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학습자-학습자 소통에서는 감수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학습자는 비슷한 학습 경험을 통해 다른 학습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조별 활동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조별 활동이 감수 수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콘차(2019)는 두 팀으로 나눠 가상의 고객을 위한 감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헤이즈만(2019)은 소규모 팀을 만들어 감수 작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했는데, 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완성된 감수 결과물을 도출하고 교수자가 공동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한 후 팀원들이 상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수업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팀으로 모여 논의하며 연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함께 논의하며 감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조별 활동의 장점을 고려하여 감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별 활동에서 중재자를 활용한 짝 활동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리앙 외(2023)는 감수 교육 방법으로 동료 중재자 활용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통번역 석사과정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사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감수하고 코멘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두 명의 평가자가 감수 결과를 평가하고 감수역량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짝을 지어주었다. 감수

역량이 높은 그룹의 참가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감수역량이 낮은 그룹의 참가자들은 학습자 역할을 하며, 짝 활동에서 감수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 뒤에, 다른 텍스트를 감수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두 그룹 모두 감수역량이 향상되었고 특히 감수 빈도가 큰 쪽으로 증가했다. 감수 빈도의 증가가 꼭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적극적인 감수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중재자와 학습자로 짝을 구성한 후 논의한 과정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자는 학습자가 해결책 찾기에 실패하면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문제를 발견했는지 묻는 전략을 많이 활용했으며, 학습자는 감수 선택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중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고, 중재자와 학습자 그룹의 참가자 모두 감수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찾고 수정하는 역량과 대인관계적 역량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조별 활동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짝을 지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5.3.3. 프로젝트 수업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감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도 고려할 수 있다. 콘티넨 외(2021)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번역 수업을 진행하며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감수자의 역할도 경험하고 번역물 평가와 감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번역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작업량을 계산하고 마감 시한을 협상하여 맞추고 수정 사항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번역물 생산 과정의 부분으로 감수 작업을 경험하며 번역 품질, 효율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감수를 바라볼 수 있고 대인관계 역량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현주(2020)가 제시한 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의 번역 수업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전현주는 번역 산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성 높은 스토리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팀별 협업을 통해 문제 분석, 역할 분담, 스타일가이드 활용, 용어집 구축 및 통일, 번역 전략, 의견 조율, 번역 품질 향상 방안 모색, 팀원 간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수업 사례를 설명하였다. 특히 번역물 생산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 감수하는지에 따라 감수자의 직함이나 역할, 업무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자경 2023: 179) 번역물 생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감수자의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경험

하고 관련 주체와 소통함으로써 대인관계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6. 나가는 말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수업의 방안을 이론, 실습,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수업의 측면에서 제공 가능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수의 개념과 정의, 원칙, 유형 등 감수와 번역의 차이를 이해하고 감수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 둘째, 감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수 항목과 범위, 가이드라인, 번역문의 품질평가 방법, 감수 작업에 활용 가능한 툴과 메타언어 등 감수 작업의 도구, 셋째, 감수자 직무와 역할, 작업 여건과 협업 방식, 감수 프로세스 등 직업으로서 감수 업무의 실제에 대한 이해이다. 시기적 측면에서 교육의 초반부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 있다. 감수의 전반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은 초반부에 설명하고 감수 작업에 활용 가능한 도구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으로서의 감수와 업계의 실제에 관한 내용은 후반부에 설명하거나 별도의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실습의 측면에서는 단일언어감수의 연습을 포함할 수 있다. 비번역문의 감수 또는 원문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번역문의 감수를 연습함으로써 원문 참조에 따라 감수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적 차원의 감수 연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 감수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문법적 오류 등 언어적 차원의 오류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번역의 목적과 텍스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독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수 코멘트 작성과 논의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감수 이유에 대한 설명, 감수 기준과 항목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오류 심각도, 감수에서의 우선순위, 불필요한 수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습도 포함되어야 한다. 감수 내용을 오류 심각도와 필요성에 따라 두 단계부터 네 단계까지 분류하는 연습도 활용할 수 있다. 번역문의 낮은 품질은 감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거론된다

는 점(김자경 2023: 193)에서 다양한 품질의 번역문을 활용한 연습도 필요하며, 현실적 작업 제약을 고려해 낮은 품질의 번역문을 제한된 시간에 감수하는 연습도 유용할 수 있다. 전문가의 감수 결과물을 분석하는 연습도 추천할 만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 학생들의 수정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수업 사례를 고려할 때, 감수 수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적 수업 활동의 측면에서는 수업 시간의 토론,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고려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감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활동은 감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설명 능력을 키우고 감수 기준이나 항목을 적절하게 적용하며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심적 부담 없이 감수 과정이나 이유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자 간 소규모 조별 활동도 필요하다. 팀을 나누어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 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등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조별 학습활동의 필요성도 있다. 조별 활동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짝을 지어 논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번역 프로세스에서 단계에 따라 감수자의 역할과 직무,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담당하며 여러 범위의 감수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주체와 협업을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수업도 유용할 수 있다.

감수 교육은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업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 국내 번역학계에서 기계번역의 활용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비해 감수 교육을 위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십여 년도 더 전에 이항(2007)이 번역자가 언어서비스제공자로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번역물 감수의 이론과 실재를 고찰하고 이를 번역 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국내의 번역 교육 현장에서는 번역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번역물을 다듬는 감수가 아니라 전문 감수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번역물을 다듬는 적극적 감수 교육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계번역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번역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계번역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계번역의 시대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몫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고치고 다시 쓰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수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감수 교육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번역 학습자를 위한 감수 교육에 관해 제한적이거나 여러 시도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이를 토대로 감수 수업의 필수적 요소로 판단되는 이론, 실습, 협력 활동의 측면에서 감수 교육의 방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감수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이며 유용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감수 교육을 위한 수업 모델을 설계하고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감수 교육의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순미. (2018). 「AI시대 인간번역과 기계(NMT) 번역의 공존 - 경영학 ‘확장(Augmentation) 전략’ 중심. 『통역과 번역』 20(2): 1-32.
- 김자경. (2023). 「이중언어 감수자의 직무 이해를 위한 탐색적 조사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1(4): 173-203.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신지선. (2019). 「태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 양성혜·송상기. (2012).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개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3(3): 191-220.
- 이상빈. (2013). 「학부 번역전공자의 교정교열에 관한 사례연구 - 번역역량에 따른 비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14(5): 169-194.
- 이향. (2007). 『번역물 감수와 번역 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전현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61.
- 전현주. (2020).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 패러다임 모색: PBL 기반의 AI번역 툴 활용 번역 수업운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4): 59-96.
- Ammour, E. (2002). La révision comme outil de réflexion en traduction. In Israel, F. (ed.), *Identité, alte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Caen: Lettres modernes minard, 55-82.
- Cheong, H-J. (2010). Translation revision student workshop as an effective translation education tool: a case study of revising a cultural comic book. 『영미연구』 23: 73-105.
- Concha, B. P. (2019). Enhancing strategic sub-competence through translation revision as a megacognitive tool. Retrieved from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q=Enhancing+strategic+sub-competence+through+translation+revision+as+a+megacognitive+tool&btnG=](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q=Enhancing+strategic+sub-competence+through+translation+revision+as+a+megacognitive+tool&btnG=) on 1 May 2024.
- Hagemann, S. (2019). Directionality in translation and revision teaching: a case study of an A-B teacher working with B-A student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3(1): 86-101.
- Hansen, G. (2008). The speck in your brother's eye - the beam in your own: quality management in translation and revision. In Hansen, G., A. Chesterman, and H. Gerzymisch-Arbogast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255-280.
- Hansen, G. (2009) A classification of errors in translation and revision. In Hansen, G., A. Chesterman, and H. Gerzymisch-Arbogast (eds.), *CIUTI-Forum 2008. Enhancing Translation Quality: Ways, Means, Methods*. Berlin: Peter Lang, 255-280.
- Hirci, N. and Peterlin, A. (2020). Face-to-face and Wiki revision in translator training: exploring the advantages of two modes of collabor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4(1): 38-57.
- Horguelin, H. (1988). La révision didactique. *Meta* 33(2): 253-257.
- Kabiri, A. and Lzadi, M. (2021). Revision teaching and revision competence acquisition in Iranian

- universities: an exploratory study. *Iranian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9(74): 7-24.
- Kasperavičienė, R. and Horbačasienė, J. (2020). Self-revision and other-revision as part of translation competence in translator training. *Journal of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8(1): 117-133.
- Kontinen, K., Veivo, O., Salmi, L. and Holopainen, T. (2017). Multilingual translation workshop – developing professional in a simulated translation market. *MikaEL – Kääntämisen ja tulkkauksen tutkimuksen symposiumin verkkojulkaisu* 10: 150–164. Retrieved from <https://sktl-fibin.directo.fi/@Bin/84b59303743e88a45b4ad30077d8edbe/1528980634/application/pdf/1587259/Mikael%20vol.10.pdf>. on 1 May 2024.
- Kontinen, K., Salmi, L. and Koponen, M. (2021). Revision and post-editing competences in translator education. In Koponen, M., B. Mossop, I. S. Robert, and G. Scocchera (eds.), *Translation Revision and Post-editing: Industry Practices and Cognitive Processes*. Routledge, 187-202.
- Künzli, A. (2006). Teaching and learning translation revision: some suggestions based on evidence from a think-aloud protocol study. In Garant, M. (ed.),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teaching and learning*. Helsinki University, 9-23.
- Latorraca, R. and Aiello, J. (2021). Investigating translation trainees' self-perceived competence: a process-oriented, collaborative seminar o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revision. *Babel* 67(4): 460-481.
- Liang, H. (2021). Initial translation interference to reviser trainees in English-LOTE translation revision tasks. *Translation & Interpreting* 13(2): 92-108.
- Liang, Y., Li, Y. and Sang, Z. (2023). A study on peer mediation in dynamic assessment of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20(1): 108-126.
- Martinkovič, M. (2022). Translation editor training: the recent past and current effort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t crossroads. *Bridge: Trends and Tradition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3(2): 71-87.
- Mossop, B. (1992). Goals of a revision course. In Dollerup, C. and A.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Papers from the First Language International Conference Elsinore Denmark*. Amsterdam: John Benjamins, 411-420.
- Mossop, B. (2022). Taking Canadian revision workshops to institutions abroad. In Svoboda, T., Ł. Biel, and V. Sosoni (eds.), *Institutional Translator Training*. New York: Routledge, 181-191.
- Mroczyńska, K. (2016). Recent developments in the translation industry and teaching translation skills. In Stolarek, J. and J. Wiliński (eds.), *(Inter)relations and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Language Scapes Studia Anglica Sedlecensia*. Monograph Series Vol 2, 195-210.
- Murphy, A. C. (2013). Incorporating editing into the training of English language students in the era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7(2): 235-255.
- Pietrzak, P. (2014). Towards effective feedback to translation students: empowering through group revision and evaluation. *inTRAlinea Special Issue: Challenges in Translation Pedagogy*, Retrieved from <https://www.intraline.org/specials/article/2095> on 1 May 2024.

- Pym, A.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487-503.
- Robert, I. S., Ramael, A. and Ureel, J. J. J. (2017).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1-19.
- Robin, E. (2016). The translator as reviser. In Horváth, I. (ed.), *The Modern Translator and Interpreter*. Budapest: Eötvös University Press, 45-56.
- Robin, E. (2018). Differenciált értékelés a fordítóképzésben: javítás vagy jobbítás? [Differentiated marking in translator training: correction or improvement?] In Hilóczki, Á., M. Fischer and C. Szabó (eds.), *Fókuszban a fordítás értékelése*. Budapest: BME, 81-104.
- Schjoldager, A., Rasmussen, K. W. and Thomsen, C. (2008). Précis-writing, revision and editing: Piloting the European Master in Translation. *Meta* 53(4): 798-813.
- Scocchera, G. (2014). What kind of training for literary translation revisers? Some data and a few suggestions.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Giovanna-Scocchera/publication/274009994\\_What\\_kind\\_of\\_training\\_for\\_literary\\_translation\\_revisers\\_Some\\_data\\_and\\_a\\_few\\_suggestions/links/55128ab30cf20bfdad5179c2/What-kind-of-training-for-literary-translation-revisers-Some-data-and-a-few-suggestions.pdf](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Giovanna-Scocchera/publication/274009994_What_kind_of_training_for_literary_translation_revisers_Some_data_and_a_few_suggestions/links/55128ab30cf20bfdad5179c2/What-kind-of-training-for-literary-translation-revisers-Some-data-and-a-few-suggestions.pdf) on 1 May 2024.
- Scocchera, G. (2020). The competent reviser: a short-term empirical study on revision teaching and revision competence acquisi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4(1): 19-37.
- Terryn, A. R., Robert, I. S., Ureel, J. J. J., Ramael, A. and Hanouille, S. (2017). Conceptualiz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 pilot study on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about revision and strategic subcompetenc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8(1): 1-27.
- Way, C. (2009). Bringing professional practices into translation classrooms. In Kemble, I. (ed.), *The changing face of translation*. Portsmouth, UK: University of Portsmouth, 131-142.

This paper was received on 6 May 2024; revised on 5 June 2024; and accepted on 10 June 2024.

---

***Author's email address***

vandi98@naver.com

***About the author***

Jagyong Kim is a Research Fellow at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and literature translation.